2018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창 열다 *OPEN* 04
의 프롤로그 *PROLOGUE* 08
예 함께한 사람 *TOGETHER* 16
술 프로그램 *PROGRAM* 20
교 시사점 *SUGGESTION* 82
육 설문조사 *SURVEY* 96
연 리뷰 *REVIEW* 100
구 통신원 *JOURNAL* 102
소 닫다 *CLOSE* 108

여 / 는 / 말

김 윤 기 _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문화 활동, 생활문화의 진흥 등과 같이 도시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사람이다.

도시가 문화적으로 활발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권이 증대된다는 것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하여 그 가치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다년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부제는 '교과 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이다. 그간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추진했던 방식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전문화하는 기획을 통해 학교 교육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앙부처의 교육정책에 발맞추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정착과 창의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꾀하는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그 결과가 광주의 문화예술교육현장과 시민의 생활을 바꾸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향후 나아갈 방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유독 뜨거웠던 여름,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참여해주신 교장·교사선생님들과 예술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강의와 운영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8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사업

프.롤.로.그

PROLOGUE

2018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사업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요구하는 현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기획자·전문가의 역할과 분야도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학교 교실 안에서는 '창의성'의 부각과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문화예술교육은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주입식 지식습득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상상력이 발현되고 친구들과 협동하는 참여수업이 실시되면서 미적체험학습과 통합문화예술이 주된 교육방법으로 부상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교과과목과 다양한 예술장르를 융합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순 수업으로서 예술교육과 다른 창의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질 높은 수업모델이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예술강사가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을 경험한 후 창의문화예술교육 수업모델을 함께 탐구하고 개발하는 시간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는 치열한 시도 끝에 참여자들의 교육역량 및 기획력을 강화하여 결국 창의예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창의예술교육연구소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 언　제 : 2018년 7월 30일(월)부터 8월 3일(금)까지
- 어디서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광산구 야호센터
- 무엇을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 어떻게 : 강의와 워크숍과 라운드테이블을 중심으로
- 누　가 :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와 예술강사 등 30명

참가자모집

- 모집기간 : 7월 9일(월) ~ 7월 25일(수)
- 모집방법 : 광주문화재단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이메일(gjarte@hanmail.net)로 제출
- 참가자격 : 모든 일정에 참여 가능한 수강생,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센터·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연락
- 선발인원 : 30명 내외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TIME TABLE

1차시	첫째 날	
	10:00~12:00	강의 〈학교교육에 문화예술교육이 왜 필요한가?〉
	12:00~13:00	점심식사
	13:00~19:00	TA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방법론 워크숍
2차시	둘째 날	
	10:00~18:00	지역문화예술교육 공간 〈야호센터〉 현장답사
3차시	셋째 날	
	13:00~15:00	강의 〈움직임 교육방법론과 통합예술수업〉
	15:00~18:00	교과연계 통합예술 움직임 워크숍
	18:00~19:00	Team Talk!
4차시	넷째 날	
	13:00~15:00	강의 〈공교육에서의 예술활동 모색〉
	15:00~18:00	통합예술 연극 워크숍 〈일상의 재료가 예술이 되다〉
	18:00~19:00	Team Talk!
5차시	다섯째 날	
	13:00~15:00	Team Talk!
	15:00~19:00	라운드테이블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수업 방안 –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위하여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

– 총 5차시 / 35시간 운영

1. 이론특강	2.워크숍	3. 현장답사	4. 라운드테이블
– 문화예술교육 중요성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방법론과 사례	– 국내 전문가들의 교과연계 통합예술 및 융합워크숍 체험 –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 프로그램 〈예술로 함께〉사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방문 및 워크숍 체험	– 수업계획서 작성 – 사례공유 및 토론 – 조별활동을 통한 결과물 도출 및 피드백
3회	3회	1회	1회

1. 이론특강

– 기획의도 : 중등 자유학기제 '주제수업' 및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기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높임

– 특강강사 : 김인설(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전미현(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소장)
김지옥(극단 북새통 문화예술교육 팀장)

– 이론교육 섭외대상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중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과 미적체험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초청

–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의미와 비전을 파악하고 학교 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중요성과 방향을 '김인설(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강사 특강을 통해 알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한 방법으로 움직임 개념에 기초한 모티프이론과 놀이를 중심으로 교과연계 통합예술수업을 '전미현(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강사 특강을 통해 알 수 있음

– 학교에서 예술교육이 필요한 다양한 이유와 공교육에서의 활용 가능한 예술 활동과 사례연구를 '김지옥(극단 북새통)'강사 특강을 통해 알 수 있음

2. 워크숍

– 기획의도 : 초·중등교원 및 예술강사를 비롯한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들에게 교과연계 통합예술 워크숍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과정을 소개, 공유하여 참여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감을 불어 넣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높임

– 특강강사 : 서울문화재단 TA (유정민, 이은미, 최아영)
전미현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양미숙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김지옥 (극단 북새통), 황아름 (극단 북새통)

– 워크숍 강사 섭외대상은 이론(특강)과 연계하여 현재 문화예술교육 중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과 미적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가 초청

–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TA)를 중심으로 하여 교과연계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와 〈예술로 함께〉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워크숍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함

– 미적체험과 움직임 개념에 기초한 통합예술수업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예술행위를 경험하여 예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에서의 예술활동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워크숍 내용은 추후 참여자가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고, 특강강사는 구성원들을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아이디어 창출을 이끌 것이라고 봄

3. 현장답사

– 기획의도 : 초·중등교원 및 예술강사가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방문 및 체험

– 현장답사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창의예술수업 활용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방문하여 직접 교사와 강사들이 그 공간과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을 답사한 곳에 대한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지역공간을 공유하며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제시할 수 있음

4. TEAM TALK와 라운드테이블

– 기획의도

: 특강과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팀별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수업 기획을 구상

: 예술체험워크숍과 교과(수업) 연계의 방법론과 운영방식에 대한 토의

: 수업기획을 토대로 한 결과물 도출과 피드백

: 현재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현주소 및 타협점 모색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과 창의예술교사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 교과 및 장르가 통합되어 효과적인 교과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감성과 인성에 적합한 예술 기반의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

– 창의예술교사 : 예술창작의 과정 및 활동을 매개로 창조적 소통방식과 미적 태도를 길러주는 예술교육 전문가

– 교사와 TA(예술강사, 예술가교사) 협업의 중요성

: 해당 교과의 해당 차시에서 꼭 배워야 할 '개념'과 예술적 감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법을 접목해야 창의예술수업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므로 TA와 현장 교사들의 협업이 꼭 필요함

2018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사업

함.께.한.사.람

TOGETHER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문화정책·예술경영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기획자양성사업의 코디네이터를 맡아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였다.

하주일 (금호초등학교 교사)

금호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과학인형극회 꼭두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팀토크 진행을 맡았다.

유정민 (서울문화재단 TA)

연극영화를 전공하였다. 2006년부터 서울문화재단 TA(Teaching Artist, 예술가교사)로 활동하며 연극과 교과목 통합수업 모델을 연구하며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이은미 (서울문화재단 TA)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서울문화재단 TA로 활동하며 〈예술로 돌봄〉, 〈예술로 플러스〉, 〈예술로 부모플러스〉등을 진행하였다.

최아영 (서울문화재단 TA)

한국무용을 전공하였다. 무용 예술강사로 초등학생들과 만났고, 2010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TA)로 활동하고 있다.

이호동 (야호센터 상주작가)

광주대인예술시장과 말바우시장 입주작가로 활동하며, 일상과 예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왔다. 선운중학교 학생들과 예술작업장 프로젝트를 하였다. 야호(YAHO)센터 입주작가로 일상의 오브제와 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천응 (야호센터 교육실장)

'삶을 위한 앎'을 위하여 현재 광산구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인문학으로 풀어내고 있다.

신희홍 (커뮤니티댄스 전문가)

무용을 전공하였다. 춤을 추는 것보다 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다보니 늘 춤을 춘다. 태이움직임연구소 기획자로 있으며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소촌 춤 공장〉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댄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전미현(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오랫동안 무용을 가르쳤다. 한국예술교육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라반이론'을 기반으로 무용과 교과목을 연계하여 통합예술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알리는 일에 힘쓴다.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부소장으로 무용교육의 활로를 넓히고 있다.

양미숙(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와 한국마임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와 아르떼 아카데미에서 움직임을 통한 '마임 테라피' 교육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김지옥(극단 북새통 예술교육팀장)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아동청소년연극으로 예술전문사 MFA과정을 마치고, 놀이를 통해 연극을 배우는 '연극놀이'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황아름(극단 북새통 단원)

현재 극단 북새통 단원으로 활동하며, 학교와 아르떼 아카데미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연극놀이'를 하고 있다.

2018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사업

프.로.그.램

PROGRAM

1DAY

창의예술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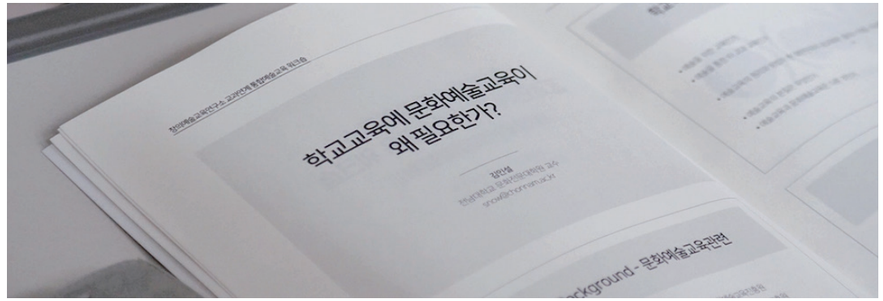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기획자양성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번 문화예술기획자양성사업은 '창의예술교육연구소'라는 타이틀로,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초·중등교원, 예술강사, 장학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목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발맞춰 문화예술교육의 트렌드를 제공하고, 체험하게 하여 현장교육가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미래 문화시민이 될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기존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으로 교육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지속해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이어나갈 것이다.

문화사업실 김홍석 실장과 문화예술교육팀 정혜영 팀장의 환영인사로 창의예술교육연구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학교교육에 문화예술교육이 왜 필요한가?

김인설(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에서 생각해 볼 문제

– 예술을 위한 교육인가?
– 예술을 통한 타 교과 교육인가?
– 예술교육의 원리와 방법이 현 공교육에 얼마나 적용 가능한 것인가?
– 예술교육의 본질은?
– 예술교육 vs 문화예술교육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은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정말 참여하고 싶은 수업인가이다. 단지 숫자만 맞춰 들어가는 형식적 것은 아닌지, 아이들이 몰입하고 있는지,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인지 물어야 한다.

뉴욕시 초등학교 학생들과 구겐하임 작가들과 함께한 2017년 전시회 ©구겐하임 미술관

김인설 교수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

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은 예술의 우수성과 기술성을 전술하는 '예술을 위한 교육'에서 점차 예술의 사회적, 도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전인교육으로 접근하는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을 향유를 통해 자아탐구와 사회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을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한다.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

세계2차대전 이후 절대이념을 거부하고 해체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이 대두됨에 따라 인간다움에 대한 생각과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의 우수성인가, 문화향유권의 증진인가?, 예술인가, 대중(국민)인가?, 창조자(모더니즘)인가, 수요자(포스트모더니즘)인가?"를 질문하며 문화예술 정책 목표가 설정되었다.

문화의 민주화는 평등이란 개념이 싹트며, 상위계층들이 누리던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예술교육도 귀족, 양반들이 향유하던 '창작'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우리는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전시든 내가 온전히 선택한 전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문화전문가가 담보한 차원에서 몇몇 소수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된 이후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문화는 전통중심, 위계적인 상하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성찰로 등장한 문화민주주의의 개념은 예술의 신성화를 반대로, 예술의 절대적인 권력을 어떻게 일반인들도 나눠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누구나 문화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각광받았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적 환경변화는 문화예술에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복원의 목적으로 가치가 확장되었다.

예술로 학교의 성공 이끌어내기

1. 구겐하임의 '예술을 통해 배우기' LAT(Learning through art) 연구보고서

TLTA (Teaching Literacy Through Art) 연구보고서, APS(educational research : The Art of problem Solving) 보고서, Facilitating Creativity Study(창의력 촉진 보고서)를 통하여 LAT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이 신장됨을 볼 수 있었다.

예술을 통해 학교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TURNAROUND : ARTS

2. Turnaround : ARTS creating success in sch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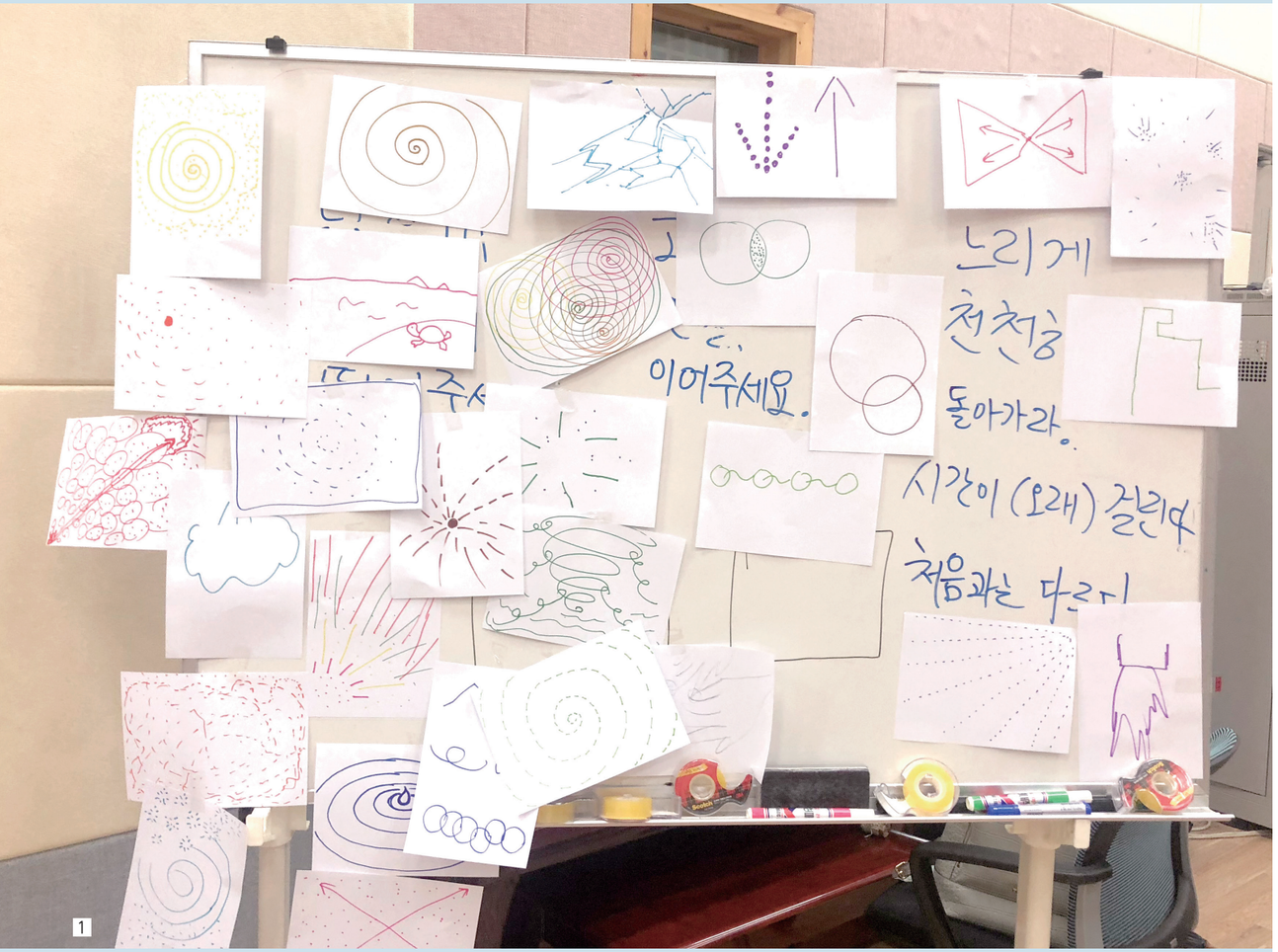
오바마 집권 후, 대통령 예술·인문학 자문위원회(PCAH)에서는 2011년 「예술교육에 대한 재투자: 창의학교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담보한다」(Reinvesting in Arts Education : Winning Americas' Future Through Creative Schools)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협의를 통해 적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2년간 지원하며, 유명 아티스트들이 각 학교에 매칭되서 예술교육 수업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 대한 관심 증가, 향상된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향상, 문제 학생 및 자퇴 학생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예술가가 사고하고 일하는 방식을
모델링하면서 학생들을 예술가로 칭하고
이해한다.
©TURNAROUND : ARTS

마지막으로 김인설 교수는 전문인력의 문제, 교육적 가치와 의미에 관한 문제, 학생들과 공감대 형성의 문제 또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문제 등 통합예술교육이란 것을 할 때 매번 부딪히고, 오래되고 풀리지 않은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5차시 라운드테이블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며 선생님들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다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 "국가가 갖고 있는 위대한 자원은 그 국민의 상상력이다.
> 상상력은 발명, 경제적 이점, 과학적 발견, 기술적 진보, 좀 더 나은 관리, 일자리,
> 공동체와 안전한 사회를 키운다.
> 예술은 상상력의 중요한 스승이다.
> 예술은 언어능력, 수리능력, 부를 위해 필요한 과학과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 그것들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
>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토니 블레어 내각의
>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의 런던정부연합 컨퍼런스 연설(1997. 11. 7)
> – 〈Creative Britain〉에서 인용 –



1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방법론 워크숍

유정민, 이은미, 최아영(서울문화재단 TA)

2

서울문화재단의 〈예술로 플러스〉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행복한 교과수업을 위한 예술과 정규교과의 만남을 지향하며, 초등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장르의 TA(Teaching Artist; 예술가교사)들이 모여 2~3인의 팀티칭으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에 대한 수업모델 개발, 연구, 실행 한다. 아이들은 예술로 교과를 만남으로써 공감, 자기반영, 예술적 상상력, 감수성, 감각적 언어를 배울 수 있다.

1. 그림으로 표현해본 날씨의 특성(광역성, 상호관련성, 비가역성)
2. 왼쪽부터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 최아영, 유정민, 이은미

1. 2. 3.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한 '상호관련성'

교과개념을 예술의 언어로 전환하기
Movement, 환경에 대하여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와 '몸 움직임'을 연계한 수업이다.
환경의 특성인 광역성, 상호관련성, 비가역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간을 넓게 활용하며 신체의 움직임을 — 다양하게 움직이거나(광역성) 상대방에 의해 나의 움직임이 또는 나에 의해 상대방의 움직임이 결정되거나(상호관련성), 흘어졌다 원래의 위치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림(비가역성) — 통해 감각적으로 나타내본다.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한 '광역성'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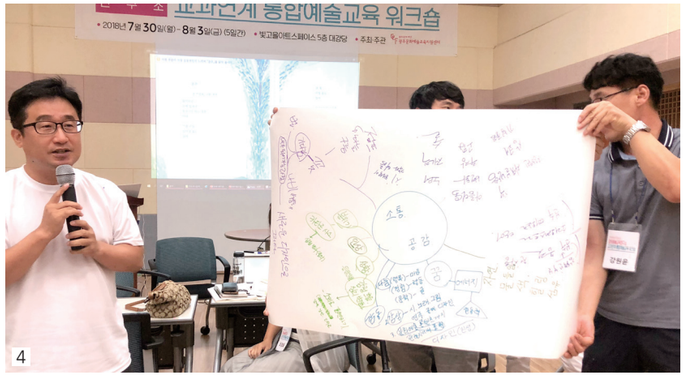
2

3

1. 당신의 모서리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나요?
2. 시의 읽고 느낀 감상을 나무와 열매를 연상시키는 시각적 표현물로 나타내었다.
3. 여러 분야의 예술강사와 교원이 한 팀이 되어 각자의 장르로 「분수」라는 시를 살펴보았다.
4. 시를 읽고 '소통과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켰다.

나의 모서리 이야기

5학년 1학기 국어에 나오는 「모서리」(이혜영) 시를 읽고,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며 그 때의 감정을 종이를 자르거나 접어 시각화 시킨다.
이를 통해 추상적인 감정을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다.



4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설계 경험하기

「분수」라는 시를 읽고 작품 소개 글을 써보는 시간이다. 이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며 직접 통합예술교육 수업모델 설계를 경험해보는 것이다.
예술가교사(TA)는 예술의 기술적인 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예술의 언어로 형상화된 작품을 선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하고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참.여.후.기

김건희(미술분야 예술강사)

예전 문화예술교육사 수업을 받으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며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접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지 간접적으로 접한 부분 그리고 상상으로만 다가간 부분들이 전부이었기에 실질적으로 학교교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진행이 되어 가는지 등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워크숍을 통해 경험 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5일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첫날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TA) 강의를 듣고 현재 학생들에게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또 연구과정 및 세세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며 실제 수업하는 방식과 같이 체험을 이끄실 때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 일부분이었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예술분야를 좋아하지만 몸으로 움직이거나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데 함께 참여한 선생님들 덕분에 감정을 예술언어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서로서로 배워갈 수 있었고 몸동작과 더불어 팀워크를 통해 더 가까워지며 이런 요소들이 수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진행되는 강의시간 안에서 배우며 즐겁게 임할 수 있었고 다른 예술장르,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과 어울려져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공유 할 수 있었기에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들을 이 워크숍을 통해 개인적으로 채워갈 수 있었고 당장 학생들과 또는 참여자들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계획 속에서 예술교육에 대해 쉽게만 다가가고 단순히 노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을 배우고 그 시간들을 통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되어 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참.여.후.기

김연우(무용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분야 예술강사)

기본교과 내용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용수업을 하고 있는 김연우 입니다.
수업을 준비하며 나름(?)대로의 기본교과와 예술적 표현 요소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진행해 나가는 동안, 개인적 역량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서울문화재단〈예술로 플러스〉 워크숍 강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주어 갈증을 해소 시켜주었습니다.

일단, 기본교과라고 할 때 체육과목 만을 생각했던 저의 틀이 깨졌고, 무용이 전공인 저로서는 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교과에서 뽑아(?)내는 식이었더라면 그와 반대로 교과에서 목표한 바를 다양한 예술언어를 비록 다양한 예술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개발하고 실현 시키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의 전환을 시켜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다 예술로 플러스 할 수 있는 소재가 풍부하다는 점과 더불어 다양한 장르에 대해 연구하고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실이 제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워크숍의 첫 날의 강의! 너무도 내게는 만족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DAY

야호(YAHO)센터 *

2018년 7월 31일 화요일 야호센터(광산구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아이들과 만나고 있을까? 두 번째 워크숍은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 일명 '야호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예술가를 만나 직접 놀거리를 만드는 아이들이 있는가하면 인문학을 통해 삶에 대해 성찰해보기도 한다. 학교와 청소년을 연결하며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선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야호센터를 방문해 보았다.

이호동 작가의 '세상의 모든 오브제로 놀다' 강연 모습

이호동 작가는 야호센터에 상주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일상의 수많은 물건들을 놀이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야호센터에서 청소년들과 만나기까지 시장이나 마을, 학교에 찾아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을 놀잇감으로 변화시키며 예술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작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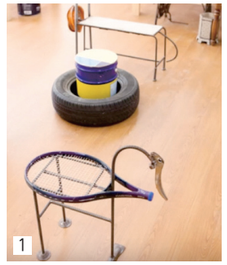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오브제로 놀다

이호동(야호센터 상주작가)

2016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어린이놀이도시 '시청이 놀이터야?!' ©광주문화재단

공간의 자유를 달라! '학교공간혁신' 프로젝트

EBS 〈학교의 기적〉에서 학교는 교도소의 평면도와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학교교육뿐 아니라 학교 공간의 혁신 또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호동 작가는 광산구에 위치한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공간의 자유를 만들기 시작했다.
학생 수가 줄어 남는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광산중학교) 만들기도 하고, 교장실과 교무실 앞 복도에 놀이터를 만들어 교장실 앞에서도 당당히 춤추고 노래하는 공간(월계초등학교)을 만들었다.



2015년 선운중학교 학생들과 '바다'라는 주제로 세월호의 아픔을 담은 프로젝트는 이호동 작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라고 한다. 공간의 구성, 의자, 팻말, 캐릭터 공간을 채우는 구성품 모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다. 사실 기성품으로 공간을 채우면 편하지만 아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상의하여 만드는 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공간이 완성되어 아이들의 쉼터가 되고, 애정이 담긴 공간이 되는 것을 보면 놓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양한 놀이감을 만들어 학교에서 놀기는 야호센터에서 더 확장되었다. 야호센터에서는 어떤 재미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1. 공간을 구성하는 의자도 기성품이 아니라 예술가와 학생이 함께 만든다.
2. 선운중학교 학생들과 이호동작가 ©야호센터

댄스실. "우리가 춤출 때 보지마세요" 학생들의 의견과 지켜보겠다는 선생님들의 충돌하는 의견을 색깔 셀로판 테이프로 협상한 결과라고 한다.

아이들, 어른들에게 모두 인기만점 노래방 기계

야호 라운딩 체험

YAHO는 각 층마다 Yard, Art, Hear&now, Owl의 의미를 갖고 있다.
조리실, 밴드실, 댄스실, 노래실이 있으며 청소년들을 억압받은 삶을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한 지하1층 'Yard', 보드게임과 그림책 공간, 예술작업장이 있는 자본과 욕망에 포위된 일상을 예술적 삶으로 회복하는 1층 'Art' 동아리방과 유스카페 등 재밌는 놀이거리가 있는 2층 'Hear&now', 3층 Owl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굴링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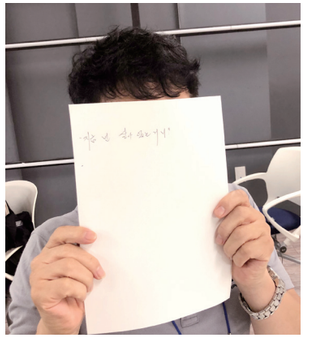
1. 동계올림픽 인기종목 컬링처럼 굳이 빙판이 아니더라도 놀 수 있는 '굴링'을 제작하였다.
2. 3. 아이들이 만든 놀거리를 선생님들이 체험해보고 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유머로 모두를 집중하게 한 김천응 교육실장의 '삶을 위한 앎' 강의

저항은 최고의 예술

김천응(야호센터 교육실장)

오늘 우리의 역사는 고려 노비의 난, 동학농민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삶을 억압하는 것들에 저항하며, 많은 것들을 잃고 또 얻었다. 김천응 실장은 자본과 소비에 얽매인 삶,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은 자신이 '진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눈을 가리고, 저항할 힘을 잃는다고 말했다. 저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저항을 접근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잘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종이에 자신의 삶에 저항하는 문구를 적으며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지금 넌 살아 있는 거니?"
내 자신이 문제아이다
그 까짓게 뭐라고 목숨을 걸어?
제발! 삶을 살자
삶의 권리를 구걸하지마. 쟁취해
"우린 나중에 쉼 쉴래" 그건 이미 죽은거야
–참여자들의 저항문구 중–

"문화예술교육을 한다면서도 쉬운 방법만 하려고 했어요.
교육대상자들에게 미안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미안합니다.
저 자신에게 저항하려고 합니다."
(남소영 예술강사)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있었던 제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황복순 예술강사)

고대광실, 완벽한 몸매 등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저항티셔츠에 대해 설명하는 고용선 장학사

저항을 디자인하다

신희홍(커뮤니티댄스 전문가)

저항 티셔츠 만들기

각자의 삶에서 저항하고 싶은 문구를 새기고, 천을 덧대거나 오려 '저항 티셔츠'를 만든다. '문화예술교육자로 기존의 교육방법을 고집하던 자신을 부수고 싶다',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고백을 사람들과 나눴다. 발표의 하이라이트. 영산성지고 '맨발의 병근이'라는 별명을 얻은 송병근 선생님의 "넌 지금 살아있는 거니?" 라는 저항어로 무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더 이상 멈춰있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겠다는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춤이었다.

넌 지금 살아있니?
무언 퍼포먼스를 보여준
영산성지고 송병근 선생님

저항 런웨이와 댄스타임을 모두 마치고, 한결 자유로워진 표정을 얻었다!

삶을 위한 춤 “그냥 흔들어 그게 삶이야”

여러 형태의 감정을 여러 색의 선으로 나타내본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이 길게 이어진 선, 소용돌이치며 깊게 돌아가는 선, 허무하게 짧고 굵게 끝나버린 선이 하얀 전지 위에 그려졌다. 지나간 감정 앞에서 놀기도 하고, 부분부분을 오려내기도 한다. 한때는 자신을 억압했으나 그것을 이겨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으니 자, 이제 댄스타임이다. 저항의 언어를 단지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억압하는 것들, 온전한 나로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퍼포먼스 마지막에는 하트 종이를 나눠주었다.
저항 이후 나와 타인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준다.

가면을 쓰고 당당하게 저항댄스를 선보이다.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참.여.후.기

이선희(운림중학교 교사)

지천명을 넘어서는 나이이다 보니 인생 좀 살아봤다는 안일함과 더불어 교실에서 아이들과의 치열한 내전에서 패전을 거듭하다보니, 쉼이 간절해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신선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매수업마다 아이들의 자발적 창의성을 끌어내어 살아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는 갈망과 함께, 뭔가 즐거울 일이 없을까를 항상 고민하던 중,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이란 공문을 보게 되었다.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참으로 단순하게 저지른 일치곤 그 결과가 어마무시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첫째 날 강의에서 무겁게 내려 앉고야만 마는 눈꺼풀을 들지 못하고 "아~출석연수는 역시 무리인가?" 하는 자괴감이 잠시 일었지만, 곧 서울문화재단의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방법론에 참여하면서 교과교육에서 달성해야 하는 학습목표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예술적 방법들이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현장의 교사들과 예술분야 교사들, 이를 지원하는 구성원들의 지난했을 노력에 대해 경이로운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론 서울의 문화예술통합교육 시스템이 부럽기도 하였다.

둘째 날은 광산구에 있는 야호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예술은 파괴이고 저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김천응 교육실장 강의에선 삶에 대한 고민과 예술의 기능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간 예술은 '예술가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 일반인은 예술을 단지 구매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로만 제한해왔던 나에게 모든 인간은 예술적 욕구가 있는 존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한 타자의 욕망에 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는 욕망을 과감하게 들어내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저항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시간을 통해 어렴풋이 해방감을 느꼈다. 예술이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왔다.

하나의 선으로, 몸짓과 표정으로, 면티셔츠에 자신의 주장을 표현해 보는 것에서부터 예술의 영역은 확장되어가는 것인가 보다. 그랬다. 아직 낯선 이들 앞에서 투박하고 날선 용어들을 내뱉고, 서툰 몸짓으로 표현하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예술행위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은 참으로 낯설고 어설펐으나 한편으로 위안을 받는 과정이었고, 이전의 나를 열어 확장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나는 나의 수업을 반성하게 되었다. 나는 평가라는 수단을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주체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내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창의성을 발휘해주길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이들은 즐거운 수업이 아니라 평가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무거운 시간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단순히 기능적인 창의성 표현 외엔 예술도 그 무엇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의 삶속에서 욕망하는 주제들을 선택하게 하는 인문학적 사유의 과정은 너무 등한시 하고 있었구나 하는 온갖 생각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나와의 수업 과정을 통해 자신을 사유해보고, 그것이 평가의 수단이 아닌 재미있는 놀이의 형태로 창의적인 활동을 가져오는 그러한 수업활동을 어떻게 구성하고 풀어가야 할지 내내 무거운 고민을 하게 한다.

이번 워크숍 과정은 끊임없이 내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내 굳어진 몸이 뒹굴고 뛰고 구부리도록, 감춰져 있고 멈춰져 있던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여 들끓어 튀어나오기를, 그리고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삶을 보는 시선을 갖기를.. 또한 즐거운 놀이 속에서 학생 스스로 확장시킬 수 있는 자극을 던지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래서 이번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에의 참여는 나에게 또 다른 삶의 변곡점을 주는 참으로 귀한 인연이자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분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 DAY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2018년 8월 1일 수요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최근 노화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의 염색체 끝에 있는 텔레미어가 짧아지고, 그 결과 노화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텔로미어는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으며, 활발한 신체활동은 텔로미어의 단축을 완화시킨다.
0교시 체육수업, 중간체조시간 등은 움직임과 교육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미현 선생님은 움직임 교육의 중요성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심리적 측면과 면역체계 강화시키는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원활한 신체활동이 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독일 무용이론가 루돌프 폰 라반(Rudolf Von Laban, 1879-1958)이 소개한 움직임 교육은 우리나라 초등 체육교육과정 교육모형에 기초가 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표현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의 전미현 선생님

움직임교육, 왜 중요한가?

전미현(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움직임 재료 알기- 모티프 이론(Motif Theory)

모티프 이론은 라반의 제자였던 Ann Hutchinson Guest와 Valerie Prestion Dunlop에 의해 어린이들의 무용교육을 위해 개발되었다. 모티프 이론은 움직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호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기록, 창작하는 기능을 갖는다.
멈추기, 돌기, 뛰기, 낮아지기, 높아지기 등 몇 가지 움직임 기호를 배우고, 기호를 조합하여 움직임의 순서를 구성해본다.

1. 움직임의 재료가 되는 기호 카드
2. '멈추기' 기호를 보고, 몸을 사용하여 멈춤을 표현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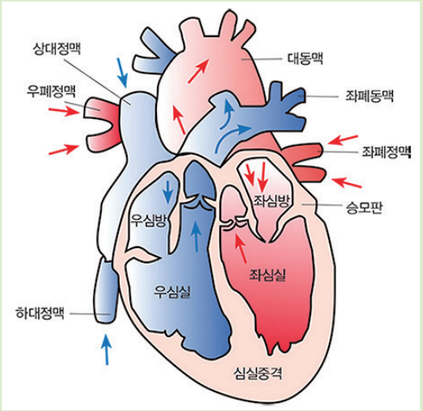
모티프 이론은 특정 무용테크닉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대상을 위한 움직임활동으로 적용 가능하다. 움직임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해결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무엇보다도 움직임 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심신이 모두 “건강한 인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

붙어! 들어! 조각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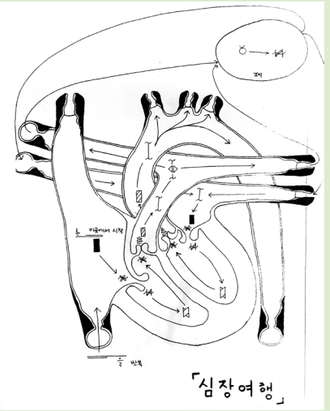
기호를 조합해 순서를 구성할 수 있다면,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예술장르와 교과내용을 통합시켜 움직임 교육을 할 수 있다. 조각 설계도를 보고, 상대방과 나의 몸을 붙이거나 들어 조각상을 만들어본다.

붙어! 들어! 조각상 만들기 조각 설계도

자신의 몸을 상대방에게 붙이거나, 들어서 조각상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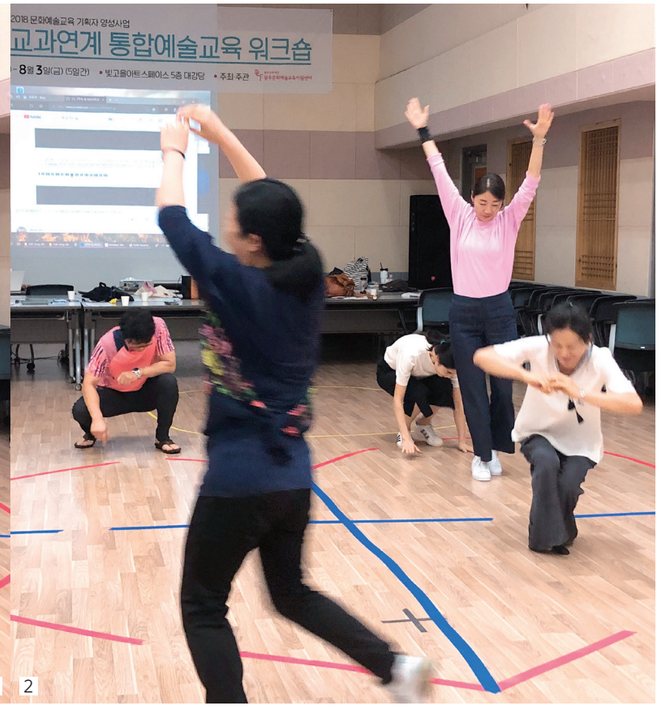
초등과학교과 ‘심장의 순환’



「심장여행」

과학교과 연계 활동「심장여행」

초등과학 교과와 움직임 교육을 연계해보았다. 심장에서 피의 순환을 움직임 기호로 표시하고, 몸을 사용하여 피의 움직임을 나타내본다. 이제 피가 되었다 상상하고, 마음껏 심장 속을 여행해보시라!



1 2

심장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흥분되어 빨라진 피의 순환 혹은 내적고요 상태의 사람의 심장 등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팀마다 표현하는 움직임은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모티프 이론의 매력이 드러난다. 특정 무용테크닉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움직임 활동을 적용해 볼 수 있다.

1. 피가 순환되는 과정을 인간처럼 하이파이브 한다고 표현했다.
2. 앞구르기를 하거나, 뜀뛰기를 하며, 온몸으로 피가되어 심장을 순환한다.

워크숍 분위기 메이커! 강원윤 선생님

다함께 머리를 맞대어 Team Talk !

3차시부터는 하주일(금호초등학교) 교사와 함께 각 팀별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교안을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전시간 체험 워크숍으로 인해 체력을 다 태워버렸지만, 꿋꿋하게 참여하였다. 먼저 하주일 교사가 설명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시도에 관한 사례와 연구에 대하여 토론하고, 초등학교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면서 어떤 교과목과 예술장르를 접목할 것인가 고민해본다. 아무래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 교안을 짜고, 혼자 실행하고자 할 때보다 협동과제로서 서로에게 위안을 받으며 더 힘을 받으시는 것 같았다. 피로를 호소하며 돌아가시는 뒷모습에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서려있었다.

1. A조의 팀토크 모습
2. B조의 팀토크 모습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참.여.후.기

조정화(무용분야 예술강사)

먼저 너무나 좋은 이번 워크숍을 열어주신 광주문화재단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워크숍을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용을 전공하면서 문화예술과 학교교육의 통합창의기획을 듣고 배워보고 싶어 이번 워크숍에 참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3차시에 배워본 라반움직임 수업은 평소 너무나 관심이 많았고 좋아하는 교육방법으로 수업에서 직접해볼 수 있는 창의교육방법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에서 귀하신 분들을 직접 모셔주셔서 좋은 교육기회를 참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하다보면 각자 자신의 분야에 바빠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창의성을 토론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라반움직임을 하면서 각 선생님들의 예술성이 모여 새로운 창의교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라반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교육경험을 빗대어 교사들이 실제교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의견도 주셔서 다양한 수업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배워보면서 학교 학생들이 라반움직임을 해보고 무보를 기록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성향이 다양한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고 무용 동작의 움직임과 선을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기고 가르치는 정형화된 교육개념이 아닌 스스로가 동작을 기억하고 그 기호들에서 자신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동작을 이끌어내는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표현력이 무뎌지는 시대에 작은 움직임하나만으로도 마음이 건강해지고 워크숍에서 처음 만난 선생님들과도 라반움직임 하나로 생각들을 융합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4 DAY

극단 북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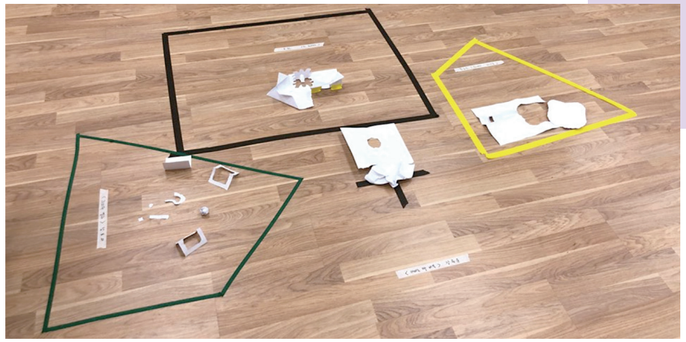
2018년 8월 2일 목요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역할을 분담하고 대본을 연습하여 연극 수업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학생중심의 전인적 성장의 경험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배제한 채 마치 연극인을 양성하는 것처럼 연극인들의 제작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수업은 공연을 통해 성취감은 얻을 수 있겠으나 공연에 대한 공포, 부담, 주인공만 도드라짐에 따른 소외감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차가운 회색 시멘트, 빽빽하게 채워진 딱딱한 의자와 책상, 분필가루 날리는 칠판으로 채워진 교실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연극놀이'는 이러한 익숙한 공간, 그 안의 물건들을 상상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 지루하고 평범하게 흘러갔던 일상들을 예술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나의 마음과 감정들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다.

워밍업은 단순히 몸풀기 이상으로 그날의 중심적인 연극활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나의 마음을 물체로 표현해본다.

교실에서의 상상과 변형

김지옥(극단 북새통 예술교육팀장)

몸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가다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당신의 기분은 어땠나요?

A4용지 한 장을 이용하여 오늘 나의 마음을 물체로 표현해본다. 제목을 보기 전까지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은 얼굴처럼 아리송하다. 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의 기분과 감정을 표현해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가늠해본다.

막대를 이용한 변형놀이

신문지를 말아 신문막대를 만들어 연극놀이를 한다. 스카프 하나로 성냥팔이가 되고, 쓰레받기가 거인의 숟가락이 되고, 구둣주걱이 도둑의 칼이 된다.
상상을 통한 변형 능력은 아이들 놀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극적변형은 물건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삶의 경험을 넓혀갈 수 있다.

1. 2. 막대를 이용한 연극놀이

"놀이는 어떤 고정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수행되는, 그리고 자유롭게 받아들여진, 그러나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자발적인 행위 또는 일로서,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며, 또 거기에는 어떤 긴장감과 즐거움이 따르며, '일상생활'과는 '다른' 것이라는 의식이 따른다." 이렇게 정의된 개념은 짐승과 아이들과 어른들 사회에서 우리가 놀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힘과 기술의 놀이, 만들기 놀이, 알아맞히기 놀이, 운수에 맡긴 노름, 온갖 종류의 전시와 공연 들을 놀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놀이"라는 범주를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 감히 부른 바 있다.

J. 호이징가,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호모루덴스」

Team Talk

하주일 선생님 진행 하에 이루어지는 Team Talk는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이다. 첫 번째 시간에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며 어떤 교과목과 예술장르를 접목할 것인지 고민을 했다면, 이번에는 교안을 작성해본다. 사실 단기간 내에 교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 프로그램 이후 결과물 도출에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처음 기획자양성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프로그램 시작 직전까지 고민한 부분이다. 실제적인 학습 모델 연구를 위하여 4차시 분량 정도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꾸려본다.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뿜어내기도 하고, 진지하게 몰입하며 교사용 지도서를 탐색하기도 하고, 분분한 의견으로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1. 과학교과와 예술교과를 접목하는 D조 2. 전구의 밝기를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해보는 교안 연구 3. 제일 먼저 교안을 완성한 C조의 '드림 차차차'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참.여.후.기

박연화(경신중학교 영어교사)

방학을 코앞에 두고 기말고사를 치르고 수행평가를 마무리하면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읽지 않았던 공문을 차례대로 읽어가던 중에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띄었고 곧이어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떠올렸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코 상상력과 창조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익혀 그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평가를 받으면서 자랐고 상상력과 창조력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몸소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할만한 일들을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 학생들의 수동적인 태도, 무반응에 속이 터지면서도 저의 경험을 미루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목표는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지만 막상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라는 평가의 최종 관문을 향해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과연 누가 익숙한 지름길을 두고 가보지 않은 다양한 길을 떠나 상상력과 창조력을 끌어내려고 할까 의문입니다.

저는 이번 '몸'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저의 수동적인 학습 습관을 깨고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맛보았습니다. 특히, 영어를 교사로서 모티프 이론에서 소개한 '움직임의 재료' 들을 보면서 각각의 재료가 하나의 단어이고 그 재료들을 하나씩 연결하는 과정은 문장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언어화 시켜서 팀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온 몸으로 새롭고 독특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활동수업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영어 과목을 통해서 성취해야 하는 목표는 의사소통능력입니다. 이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바탕에 공감능력과 표현능력이 필요합니다. 읽기와 듣기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잘 알아야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가 되어서야 말하기와 쓰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종 종 무례하게 여겨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영어활동수업을 통해 말하기와 쓰기, 즉 표현 능력을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애초에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이 있으나 말하지 않고 글을 알지만 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독특하게 에어로빅 수업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공포의 에어로빅이라고 했지요. 선생님은 정확하고 힘 있는 동작을 끊임없이 요구하셨고 이 수업을 받고 나면 적어도 삼일은 온 몸이 쑤시는 고통을 감수해야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자진해서 에어로빅을 배우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저 제 기억 속 학창시절의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다양한 '몸' 관련 수업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 무용은 단지 아름답게 하는 운동이라고만 여겼을 것입니다. 정말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살면서 억압받고 수축되어 있는 자아를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예술 관련 과목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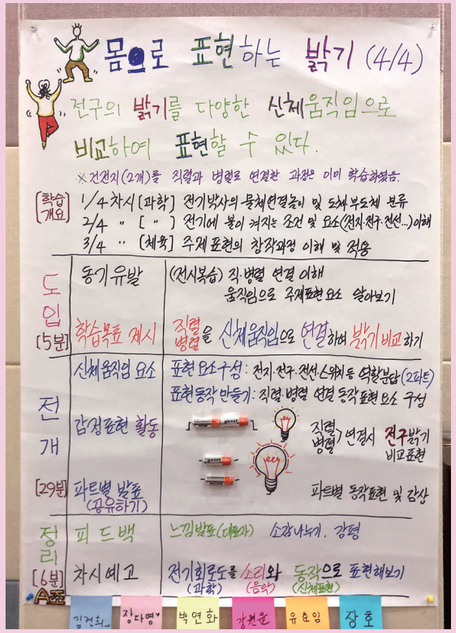
통합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표현능력을 키워 다른 여러 과목들에 반영한다면 '인문학적 상상력' 과 '과학기술 창조력' 이 뿜뿜 솟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성취한 이 힘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겠지요. 미래의 원동력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원동력이 되어 살아가야할 학생들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때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지도 모르구요. 그래서 학생들이 즐겁게 예술과목들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5 DAY

라운드테이블 그리고 수료식*

2018년 8월 3일 금요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창의예술교육연구소의 마지막 날이 왔다. 열심히도 달려왔다. 오늘 워크숍은 하주일 선생님의 Team Talk로 시작하여 조별로 작성한 교안을 마무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습목표와 학습개요, 도입-전개-정리를 포함한 4차시 분량의 교안을 작성하며, 어떤 교과목을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어떻게 '창의성'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은 선생님들이 조별로 작성한 교안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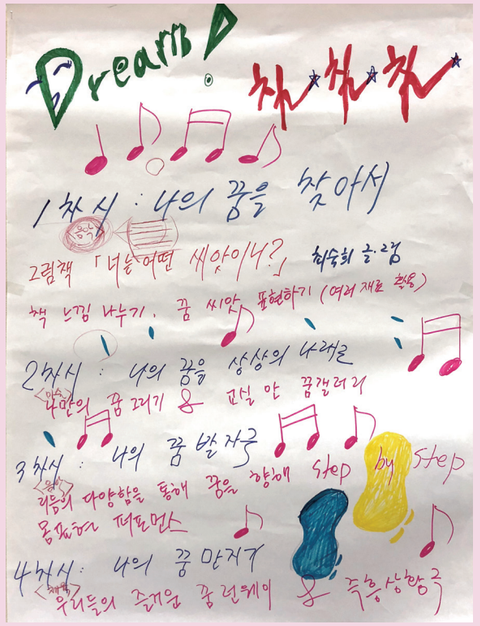
모둠별교안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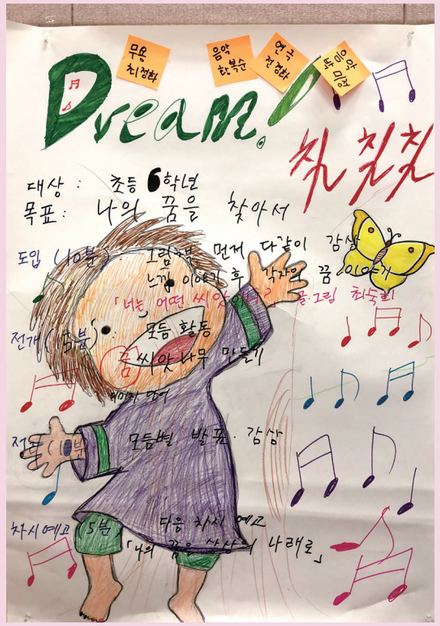
A조. 몸으로 표현하는 밝기

강원윤, 김건희, 박연화, 유효임, 장다영, 장호

A조는 과학과 체육 교과를 연계하여 몸으로 전구의 밝기를 표현해보는 교안을 작성하였다. 각자 전지, 전구, 스위치 등 역할을 분담하여 직렬, 병렬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밝기를 비교해본다. 이성적인 사고를 요하는 과학교과와 신체활동, 감정표현활동을 접목하여 창의적 사고 발달을 위해 고민한 흔적과 직접 폐건전지를 활용하여 직렬과 병렬을 표현하는 디테일함을 볼 수 있었다.

학습목표	전구의 밝기를 다양한 신체 움직임으로 비교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학습개요	과학 – 전기박사의 물체연결놀이 및 도체·부도체 분류 과학 – 전기에 불이 켜지는 조건 및 요서(전지·전구·전선) 이해 체육 – 주제표현의 창작과정 이해 및 적용
도입	복습 – 직·병렬 연결 이해/움직임으로 주제표현 요소 알아보기 학습목표제시 – 직렬/병렬을 신체움직임으로 연결하여 밝기 비교하기
전개	신체움직임 요소 – 표현요소 구성 : 전지·전구·전선·스위치 등 역할분담 감정표현활동 – 직별/병렬 연결시 전구 밝기 비교 표현 파트별 발표 – 파트별 동자표현 및 감상
정리	피드백 – 느낌발표(대표자), 소감나누기, 감평 차시예고 – 전기회로도(과학)를 소리(음악)와 동작(신체표현)으로 표현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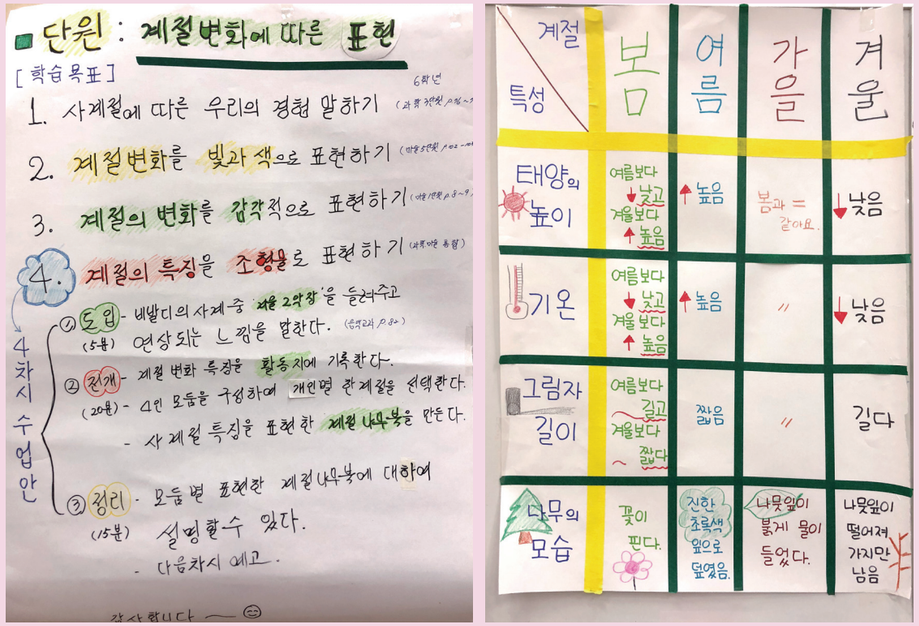
모둠별교안발표

B조. 드림 차차차(Dream 차차차)

김연우, 박미정, 전경화, 최정화, 황복순

B조는 무용, 음악, 연극 등 여러 장르의 선생님들이 모여 한 팀을 이루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교안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채워져 있었다. 그림책을 읽고 그 느낌을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적 움직임으로 표현해본다. '나의 꿈'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도 여러 감각을 사용하여 감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4차시 '우리들의 즐거운 꿈 런웨이'는 야호센터에서 경험한 '저항 런웨이'를 모티브로 하여 즉흥극으로 자신의 꿈을 발표한다.

학습목표	나의 꿈을 찾아서
도입	그림책을 다같이 감상하고 느낌을 나눈 후 각자의 꿈 이야기
전개	**모둠활동 – 꿈 씨앗 나무 만들기** • **1차시** : 나의 꿈을 찾아서 ※교보재 : 그림책 『너는 어떤 씨앗이니?』 최숙희(글·그림) 〈음악〉 책 느낌 나누기, 여러 재료를 활용하여 꿈 씨앗 표현하기 • **2차시** : 나의 꿈을 상상의 나래로 〈미술〉 나만의 꿈 그리기, 교실 안 꿈 갤러리 • **3차시** : 나의 꿈 발자국 〈음악〉 리듬의 다양함을 통해 꿈을 향해 Step by step, 몸 표현 퍼포먼스 • **4차시** : 나의 꿈 만지기 〈체육〉 우리들의 즐거운 꿈 런웨이, 즉흥 상황극
정리	모둠별 발표 및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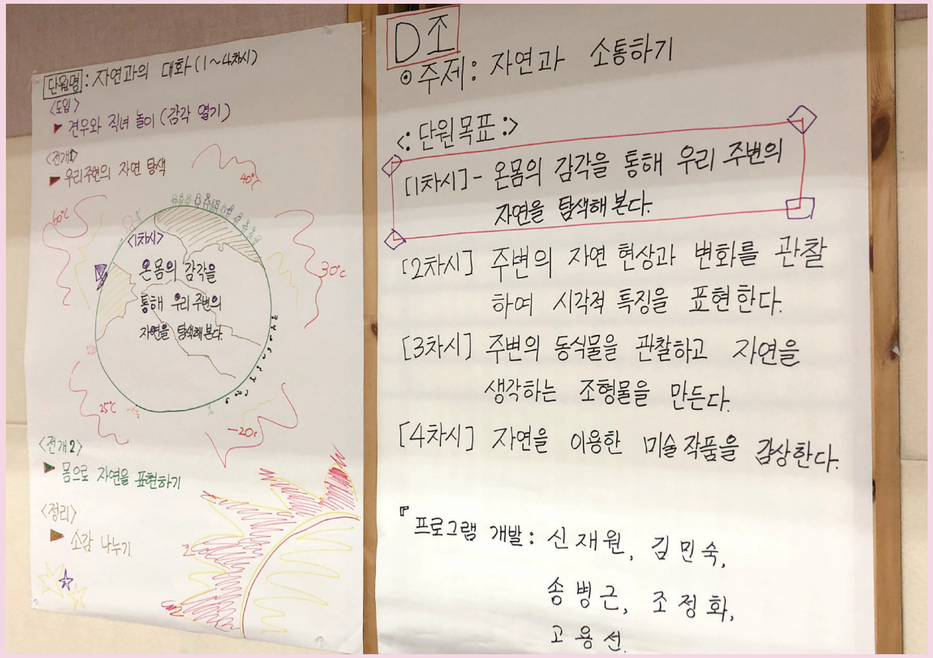
모둠별교안발표

C조. 계절변화에 따른 표현

남소영, 박경희, 송화영, 이선희, 이지숙

6학년 과학교과에서는 사계절에 따른 특성을 배우고, 미술교과에서는 '빛과 색'에 대해 배운다. 이를 연계하여 사계절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빛과 색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계절나무 북'을 만든다. 계절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계절 변화에 따라 느낄 수 있는 감각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감각을 체험해볼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목표	① 사계절에 따른 우리의 경험 말하기 (6학년 과학 3단원) ② 계절변화를 '빛과 색'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미술 1, 5단원) ③ 계절의 특징을 조형물로 표현하기 (과학 + 미술 통합)
도입(5분)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을 들려주고 연상되는 느낌을 말한다. (음악교과)
전개 (20분)	• 계절 변화 특징을 활동지에 기록한다. • 4인 모둠을 구성하여 개인별 한 계절을 선택한다. • 사계절 특징을 표현한 계절나무북을 만든다.
정리(15분)	모둠별 표현한 계절나무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모둠별교안발표

D조. 자연과의 대화

고용선, 김민숙, 송병근, 신재원, 조정화

매 차시마다 열띤 토론의 장을 보여준 D조는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는 교안을 작성하였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지만 소홀했던 자연이나 동·식물을 유심히 관찰해보고, 조형물로 만들어본다.

학습목표	• **1차시** – 온몸의 감각을 통해 우리 주변의 자연을 탐색해 본다. • **2차시** – 주변의 자연 현상과 변화를 관찰하여 시각적 특징을 표현한다. • **3차시** – 주변의 동식물을 관찰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조형물을 만든다. • **4차시** – 자연을 이용한 미술작품을 감상한다.
도입	(감각열기) 견우와 직녀 놀이
전개	1. 우리 주변의 자연 탐색 2. 몸으로 자연을 표현하기
정리	소감 나누기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김인설 교수와 하주일 교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라운드 테이블은 학교장, 교사, 예술강사, 교육청 장학사 등 교육 종사자들이 모여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구조를 형성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적으로 교과연계 문화예술교육은 초, 중, 고등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운영되어야 하며 중, 고등보다는 초등교육에 중점적으로 시행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교과 간의 벽, 교안개발 어려움, 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학교 측과 예술강사 간의 갈등과 소통의 문제였다. 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학교측의 불필요한 개입과 불명확한 평가기준, 학예회에 대한 부담 등이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예술강사와 교원 사이의 불편한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고민을 듣고, 나눠봄으로써 서로의 입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1

2

1. 워크숍 시작부터 마무리 라운드테이블까지 함께해준 김인설 교수
2. 광주시교육청 고용선 장학사의 참여로 라운드테이블이 더욱 풍성해졌다.

〈몸으로 표현하는 밝기〉 교안으로 Best Team Talk상 수상!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꾹 눌러 담아

무더웠던 여름,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꾹 눌러 담아 참여주신 참여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으로 김윤기 대표이사님의 수료장과 상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8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발급되는 수료증은 총 24명이 받게 되었다. 체험워크숍 때마다 맨발의 투혼으로 청춘보다 더 청춘다운 열정을 보여준 송영근 선생님은 '맨발의 열정상', 추가신청으로 하루 늦게 합류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해준 장다영 선생님은 '상상 그 이상', 주변의 분위기를 소녀소녀하게 바꿔준 이선희 선생님께는 '소녀감성상'을, 매차시마다 살신성인의 분위기메이커 강원윤 선생님은 '와줘서 고마워상', 나비처럼 작은 움직임으로도 주변에 큰 파급력을 보여준 조정화 선생님의 '나비효과상' 까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상과 함께 작은 선물을 드렸다. 상을 받은 선생님들은 즉석 댄스타임을 선보이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수료식이 마무리 되었다.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참.여.후.기

신재원(광주시교육정보원 진로지원단 진로코치)

폭염과 무더위 5일간의 워크숍!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정말 시원한 피서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1%모티브 무브먼트99% 교육'이라는 교육단체에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진로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융합적사고력을 계발시키는 것을 기본교육 목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교육의 사례를 보면서 또 다른 시각의 티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1%모티브 무브먼트99% 교육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흥미 적성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어떻게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고 모두 참여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타 교과를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활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무척 많은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기억도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모두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도 참여하신분들의 교육열정 정말 대단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진로교육과 인성교육은 하고 있는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기본바탕으로 교육시스템화 되어야 올바른 교육이 될 것이라고 여기며, 교과에 대한 1%모티브와 무브먼트99%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여겨봅니다.
따라서 이번 5일간의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연수는 무더위와 폭염 속에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예술사선생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며, 광주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연구소 담당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찬사를 보냅니다.
또 우리의 매일매일은 다양한 일상생활 모든 것이 문화이고 예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교육시스템을 통해서만이 가장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참.여.후.기

장 호(광주중학교 교장)

통합예술교육으로 교실현장을 일으키자!

(재)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최·주관하여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7월 30일(월)부터 8월 3일(금)까지 5일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은 놀라움과 행복함 그 자체였다.

김인설 교수(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의 특강 [학교교육에 문화예술교육이 왜 필요한가?]에서는 다양한 이론 소개와 더불어 예술의 효과 중 최소한 살려야 할 기본은 '매료(흥미 또는 몰입)'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특히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구겐하임의 예술을 통해 배우기'보고서에서 예술을 통해 문해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이 신장되었다는 사례는 인상적이었다.

이어진 '예술로 플러스'라는 부제로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 3인이 진행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방법론]은 초등학교에서 예술분야가 아닌 정규교과와 연계한 통합예술교육 방법론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어 본 워크숍이 지향하는 바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둘째 날에 [지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공간 현장답사]에 나선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특이하게도 교육기관이 아닌 자치단체(광산구)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2016년 10월에 개관했다고 하는데, 공간혁신아이디어 생성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청년·어른이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해 온 다양한 사례를 엿볼 수 있었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최근 현장교원들의 탐방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날에 진행된 [움직임 교육방법론]은 최근 신체활동의 중요성으로 관심을 갖게 한 분야였는데, 독일의 무용이론가인 라반(1879~1958)의 연구를 토대로 체육교과에서 움직임 재료인 Dance notation(무보)을 통해 교과통합, 문제해결력 향상, 나아가 공연자·관람자 역할의 심장여행 효과도 가능하다면서 현장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실습할 수 있었다.

넷째 날에는 [교과연계 연극]은 극단 북새통(2002~)의 교육팀장 및 단원들이 강사로 나섰는데, 처음부터 맨바닥에 둥그렇게 앉아 진행된 가운데, 공간의 새로운 탐색과 서로간의 스스럼없는 분위기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특히 교사의 마중물·이끔이 역할을 강조하면서 연극놀이의 전개과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하주일 교사(금호초)의 안내로 진행된 [Team Talk!] 시간에는 팀별로 초등학교 교과목 지도서에서 예술연계 내용을 추출하여 4차시 분량으로 지도안을 구상하고 발표하도록 했는데, 이는 첫째 날에 학습했던 '예술로 플러스'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은 김인설 교수(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와 하주일 교사(금호초)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교안에 대하여는 초등학교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수업운영에 있어서 교육목적과 내용의 연계성을 강조했으며, 학교 내 갈등상황에 대하여는 정교사와 외부강사(문화예술강사, 방과후학교강사 등)의 역할문제와 학교 내 위상에 대한 고민이 주로 거론되었다.

교육의 효과와 평가 면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통합예술교육이 현장에 끼치는 효과를 새삼 인식하였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대화시간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서로 간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차제에는 초등교원·중등교원,문화예술강사로 분리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초등교원 대상은 이번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중등교원과 문화예술강사 대상의 내용편성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듯 하며, 교원연수의 경우 종일로 편성하여 기간을 하루라도 줄여주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워크숍은 김윤기 대표님, 김홍석 실장님, 정혜영 팀장님 이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팀에서도 팀장님과 담당장학사님이 시종일관 참여하였으며, 참석자 모두 다음기회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2018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사업

시.사.점

SUGGESTION

진정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의 시작 : 틀림이 아닌,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기

김 인 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교육이 업(業)이다 보니, 교육제공자로서 '입장의 차이'가 교육의 성과와는 별개로 교육의 방향성이나 교수법 자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잘 안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학부시절에서는 클라리넷 전공자로서 소위 말하는 레슨을 시작으로 석박사 유학시절부터는 한국에서는 영어학원강사, 미국에서는 강의조교, 학위 후에는 시간강사에서부터 현재는 대학 교수로 다양한 정체성과 명칭 아래 교육에 종사해 왔다. 이러한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의 차이는 '나는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은 교사와 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사 포함) 모두의 입장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위의 질문과 관련해서 일련의 당혹감 또는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그 이유는 교사 그리고 예술강사 각자가 교육자로서 편안하게 느끼는 안주지대(comfort zone)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을 앞서 적용한 해외에서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입증된 긍정적인 예술교육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현장에서 많은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가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중 많은 논문들이 그 이유에 대해 교사와 예술강사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와 교육방식에 주목한다.

Oreck(2006)은 10년이 넘는 동안 미국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교사연수에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눈에 띄게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교사가 많지 않은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교사들은 예술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자신들의 수업에 접목시키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예술을 적용해 자신의 과목을 이해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컸으며, 책임져야 하는 진도를 소화하는데서 초래하는 압박감이 그 다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교과연계 예술통합교육을 시도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받은 이전의 예술교육 경험, 현재 예술과 관련된 적극적 활동, 또는 전문성을 대변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경험기간이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지식습득과정에 있어 관찰되는 다양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증폭할 수 있는 기제들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가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동인으로 밝혀졌다.

예술강사의 경우,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더욱 많은 노력과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기술 중심적인 예술교육의 경우, 예술강사는 압도적으로 자신의 안주지대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장르 중심적인 예술대학 특성 상 연주자, 화가, 사진가, 작가, 무용수 등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아주 이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소위 '예술을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오고 또 전문가로 양성되어 온 예술전공자들이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안작성, 주차별 교육목표, 활동기록지, 관찰기록지, 교육연구, 교수법 개발 등은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환경에 등장한 도구적 산물이다. 이에 더해, 테크닉이 아닌 확장된 교육의 범주 안에서 예술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정해보고 이를 실행해 가는 과정은 비로소 대학 졸업 후, 예술강사로서 첫 발을 내딛을 때 요구받기 시작한다.

더구나 예술과는 별개의 학과목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학교 교사가 자신의 과목에 예술을 접목해 가르치는 데서 오는 부담감보다 예술강사가 예술을 통해 타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서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것은 교사와 예술강사 간 교육자로서의 연륜이나 경험치, 또는 지식에서 오는 차이보다 학교에서 예술은 진지한 공부보다는 일종의 '놀이'나 '체험학습'에 가깝다고 느끼는 교사와 학생의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술강사의 경우,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은 좀 더 치밀하고 계산된 틀 안에서 계획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와 예술강사 입장의 차이를 부분적이었지만 드러내 보이고 논의했던 시간이 바로 광주문화재단에서 기획한 5일간의 〈2018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었다. 첫 날, 첫 시간의 특강에서 느꼈던 약간은 경직된 시간과는 달리, 5일간의 워크샵은 예술강사와 교사, 장학사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주체로서 연대하고 가까워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간을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라는 참여자 모두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주제로 잡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직접 경청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다양한 국내연구 및 현장에서 발견된 5가지 범주에서 논의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5가지 범주는 1.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의 커리큘럼 개발, 2. 학교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개선, 3. 수업운영 시 학생관의 관계 맺기, 4. 예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예술강사의 처우 및 교육사업 운영방식 개선이었다. 이러한 범주들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결국에는 논의의 방향을 장악했던 마지막 범주인 예술강사의 처우 및 교육사업 운영방식 개선의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철저하게 교사와 예술강사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제도적, 정책적, 인지적, (학교 내) 문화적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렴된다.

서먹했던 관계에서 5일간의 연수를 거치면 좋았던 분위기를 씁쓸한 주제로 마무리 한 것만 같아 내심 참여자 선생님들께 죄송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리고 심층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계속해서 마주할 때, 그리고 함께 이러한 불편함을 야기하는 원인과 대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 차이와 고민에 대해서 논의할 때 비로소 교육자로서 우리는 함께 왜 교육하며, 무엇을 위해 교육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 진다. 그 작은 시발점은 바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드러내 보이는 시간이었던, 7월 31일부터 8월 3일간의 여정이지 않았을까. 그 날 함께 했던 모든 예술강사, 교사, 장학사 선생님들을 마음 깊이 응원하고, 이러한 자리를 기획한 광주문화재단의 노력에 감사한다.

〈참고문헌〉

Oreck, Barry. (2006). Artistic choices: A study of teachers who use the arts in the classroom.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7(8). Retrieved on 08/11/2018 from http://www.ijea.org/v7n8/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Team Talk 운영의 실제

하 주 일 (금호초등학교 교사)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팀토크 코디네이터 –

Ⅰ.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Team Talk는…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요구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확대·운영에 따라 주입식 지식습득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상상력이 발현되고 협동하는 학생참여형 수업이 실시되면서 미적체험학습과 창의문화예술교육이 주된 교육방법으로 부상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는 교사 외에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관련 교과지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예술과목 등에서 예술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교과와 예술 장르가 통합되어 효과적인 교과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감성과 인성에 적합한 예술 기반의 창의적인 교육 경험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교과의 해당 차시에서 꼭 배워야 할 개념과 예술적 감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법을 접목하고, TA(예술강사, 예술가교사)와 현장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나누는 소통과 함께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들어보는 협업 과정을 통하여 창의예술 수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Ⅱ. 사례연구를 통한 예술강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

양진예 외(2014)는 「문화예술강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사례연구(A Case Study on Teaching Life of Culture Art Educators)」에서 문화예술강사의 열정과 자부심에 비해 학교 현장의 이해와 소통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이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로, 서울시 중, 고등학교 문화예술강사가 겪는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적합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예술강사 평가기준 재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유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에 의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강사 3명을 선정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관찰과 함께 약 6시간에 걸쳐 세 차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술과 분석뿐 만 아니라 해석의 과정에서도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member check)과정을 거쳐 연구자의 관점으로 현상이 분석과 해석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예술강사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에 비해 학교 현장의 이해와 소통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성과 실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통이라는 새로운 연결고리와 희망적 관계 형성을 제시하였으며, 소통의 역할과 중요성을 경험하였다. 또한 평가 제도에 대해 교직 생활에 전반적인 갈등 상황의 어려움과 답답한 현실을 표현하며, 평가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교수 학습 지도안의 수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학교에서도 강사제도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하며 강사 및 수업에 대한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위 사례연구에서는 예술강사의 교직생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강사의 교직생활

1. 문화예술강사 OOO입니다.

1) 문화예술강사가 되다 : 자부심
2) 연수 그리고 워크샵 : 열정
3) 나 그리고 동료 : 유대감

2. 적당히 알아서 해 주세요 : 학교와의 관계

1) 문화예술강사도 선생님입니다.
2) 무용 수업은 어디서 하나요?
: 교실에서 책상 밀고, 나는 청소부
3) 수업 범위가 아닌데요
: 딜레마,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3. 방송 댄스 하면 안 되나요? : 학생과의 관계

1) 반항하는 10대가 무서워요.
2) 방송 댄스 하면 안 되나요? 축구하고 싶어요!
3) 삐에로처럼? 딴따라처럼!

4. 계속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 평가

1) 우리가 평가하는 건 없어요?
: 학생과의 평가갈등
2) 평가를 위해서! : 평가를 위한 수업
3) 복불복 평가 : 평가의 구조적 문제점

5. 그 속에서 빛을 보다 : 소통의 힘

1) 어쩔시구 옹해야!
2) "선생님 보고 싶어 왔어요!
빨리 무용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3) 학생들이 행복하다면…

Ⅲ. TA(예술강사, 예술가교사)와 현장 교사와의 협업 모델 탐색

김지영(2013)은 「초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공동체 사례 연구(A Case Study on Learning Community of Elementary School Dance Instructor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에서 초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심층 탐구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공동체의 초기 형성단계는 자발적인 공유의지를 가지고 상황적, 물리적, 인지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학습공동체의 지속은 구성원들의 지역, 교육관, 관심사, 헌신, 열의, 책임감, 성실성, 신앙심 등의 유사성향과 구성원간의 인지적 부조화 해결, 능동적 참여기회, 잠재된 역량 발휘, 확장된 학습영역을 고려한 상황적 맥락에서의 호혜적 관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습공동체의 발전단계에서는 무용영역, 수업계획과 실행, 교과지식과 연계, 문화유산을 활용한 놀이 연계,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는 그물형 구조의 전방위 학습공동체 형태에 의해 개발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활동을 살펴본 결과, 수업자료와 교구의 공유, 내용과 방법 등 수업전략, 움직임을 유도하는 발문법, 타교과와의 연계된 학습주제가 제시되었다.

셋째, 학습공동체 활동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 결과, 지식과 실천의 순환적 연계,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로운 직업 환경에서의 동료의식, 예술가이지 교육자라는 직업적 정체성, 무용교육의 진정성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는 물음표를 가져다주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써 전문성을 개발해가는 협업적 학습의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자료와 교구의 공유	• 수업자료와 교구를 협력적으로 제작하여 활용 • 집중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수업자료 연구 • 이해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교구 연구
수업전략의 공유	• 수업지도안의 목표의 주제 설계 • 놀이형식의 움직임 고안 • 집중과 주목의 방법 공유 • 칭찬과 격려의 방법 공유 • 효율적, 합리적인 모둠 편성 방법 공유
발문법 연구	• 열린 발문법 : 창의적인 표현(움직임) 유도
타 교과와 연계된 학습주제 연구	• 무용 수업에 적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예술강사의 학습공동체 주요 활동〉

Ⅳ.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Team Talk의 실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Team Talk는 1회차 1시간, 2회차 1시간 3회차 2시간으로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 시작부에서는 TA(예술강사, 예술가교사)와 현장 교사간의 소통의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현장에서의 힘들거나 어려운 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해 2·3회차 때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Round Table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1일차에는 먼저, 모둠별로 교과간 또는 교과내 통합으로 통합의 형태를 정하여 교과별 지도서를 탐색한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4차시를 기준으로 하되, 대주제를 설정하고 차시별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2일차에는 4차시분 중에서 1차시를 정하여 세부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데, 차시 목표, 도입-전개-정리 등의 학습 단계, 시간 배분, 수업 내용, 자료, 유의점,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교과와 연계해야 하고 다양한 예술언어, 하나의 의미에 다양한 예술양식으로의 표현, 복합·종합 예술작품의 활용 등을 할 수 있다.

3일차의 첫 번째 시간에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실시한다. 수업자료와 교구의 공유, 내용과 방법 등의 수업전략, 움직임을 유도하는 발문법, 타 교과와의 연계된 학습주제 탐색 등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한 이해와 적용력을 높이도록 한다.

8월 1일(수) [30분]	• 교과간 또는 교과내 통합(모둠별) – 교과별 지도서 활용
	• 대주제 + 차시별 목표(4차시 내외, 교과 제시)
8월 2일(목) [60분]	• 1차시분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 차시목표, 도입-전개-정리, 시간 안배, 내용, 자료, 주의점, 평가 등
	• 교과연계 + 다양한 예술언어, 다양한 예술양식으로의 표현, 복합·종합예술작품의 활용
8월 3일(금) [120분]	• 한걸음 더 : 학습공동체 활동(협의 및 수정)
	• 발표 및 피드백(모둠별)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Team Talk 활동 내용〉

Ⅴ.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예시

1. 대주제 및 차시별 목표

대주제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기	
차시	학습 목표	교과연계	
		교과	단원 및 차시
1차시	사계절에 대한 특징을 말할 수 있다.	과학	3. 계절의 변화(1/11)
2차시	계절의 변화를 빛과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미술	5. 빛과 색으로 표현하기(1/3)
3차시	계절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미술	5. 빛과 색으로 표현하기(2/3)
4차시	계절의 특징을 조형물을 표현할 수 있다.	미술	5. 빛과 색으로 표현하기(3/3)

2. 1차시분 교수학습 과정안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일 시	2018. 8. 3.	학 년	6	장 소	교실	수업자	김OO
주제(차시)	• 계절의 특징을 조형물로 표현하기(4/4)						
학습목표	• (지식, 기능) 계절의 특징을 조형물로 표현할 수 있다. • (태도) 다른 모둠에서 만든 조형물을 바르게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 (핵심역량) 모둠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소통한다.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평가계획 평가방법	• 계절의 특징을 조형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관찰) • 다른 모둠에서 만든 조형물을 바르게 감상하는 태도를 지녔는가? (관찰) • 모둠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였는가? (관찰)						

단 계 (시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 : 자료 ○ : 유의점
도입 (5′)	동기유발하기	• 연상되는 느낌 말하기 –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을 듣고 연상되는 느낌 말하기	▣ 비발디의 사계중 겨울 2악장 파일
	공부할 문제 확인하기	• 공부할 문제 : 계절의 특징을 조형물로 표현해 봅시다.	
전개 (30′)	조형물로 표현 방법 알아보기	• 계절의 변화를 조형물로 표현하는 방법 알아보기 – 모둠별로 표현 방법 탐색하기 – 표현 재료 선택하기 – 간단히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 북만들기 재료, 나무젓가락, 고무줄, 색종이, 칼라지점토, A4 용지 ○ 모둠별로 창의적으로 생성된 아이디어가 정교하게 산출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조형물로 표현하면 좋은 점 알아보기	• 계절의 변화를 조형물로 표현하면 좋은 점 알아보기 – 다양한 아이디어로 표현 가능 –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 가능 –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 표현할 수 있음	
	조형물 만들기	• 모둠별로 정한 방법으로 계절의 변화를 표현한 조형물 만들기 – 계절 나무북 만들기 – 나무젓가락과 고무줄을 활용하여 만들기 – 색종이와 칼라지점토를 활용하여 만들기 – A4용지와 색종이를 활용하여 만들기	
	모둠별 발표하기	• 계절의 변화를 표현한 조형물의 잘된 점 말해보기 –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음 – 계절의 변화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음 – 계절의 변화를 다양한 재료로 나타낼 수 있음 – 모둠별로 협력하여 조형물을 만들어냄	
정리 (5′)	알게 된 점 말하기	• 알게 된 점, 느낀 점 말하기 –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말하기	○ 이 시간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발표를 통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한다. ○ 모둠별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하기	• 궁금한 점 질문하기 – 모둠별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기	

2018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사업

설.문.조.사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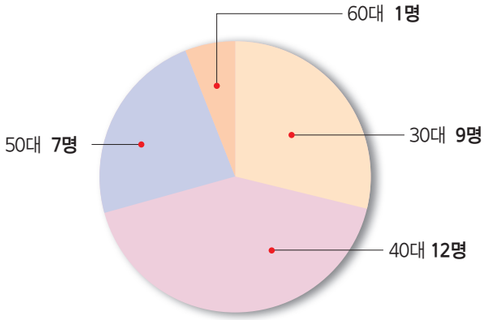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참가자 만족도*

1. 성별

남자 **7명**　　여자 **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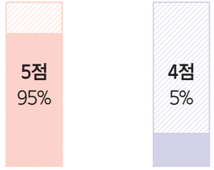
2.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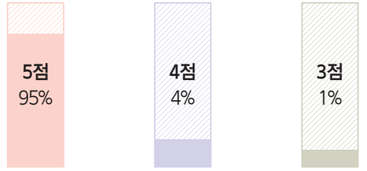
3. 교육장르(N = 총 29명)

·5점 : 매우 그렇다 ·4점 : 약간 그렇다 ·3점 : 보통 ·2점 : 별로 그렇지 않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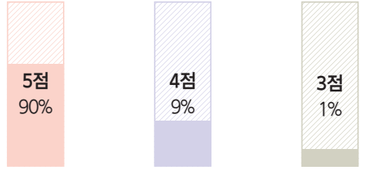
4. 본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5. 프로그램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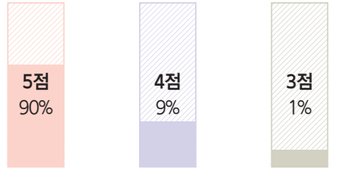


6.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커리큘럼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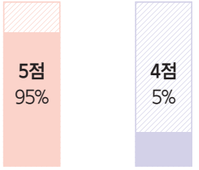


7. 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과 기간은 적절하였습니까?

8.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교육내용과 정보가 창의성 함양 및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9. 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까?



2018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사업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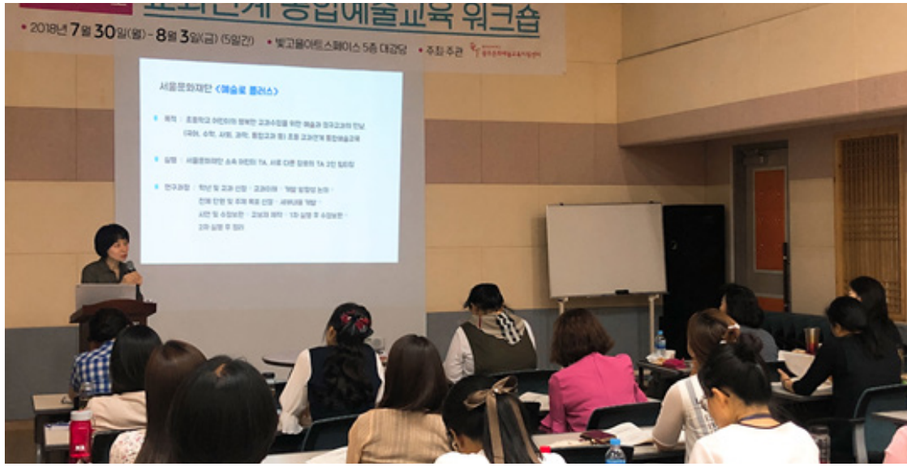
REVIEW

참여 소감

- 함께한 5일간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현직교사와 같이하는 통합예술교육 워크숍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숨 가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것들을 소화시키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터… 교과연계통합예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에는 숙박형 연수 어떠신가요?
- 더 빨리 시작해서 더 빨리 끝났었으면… 교과와 연계된 워크숍인만큼 교과 내용을 더 알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즐거웠습니다.
- 중학교에 있다보니 저학년 중심의 수업 아이디어와 모형들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함께하길 기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
- 교직이수나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폭발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심화과정 도입이 시급합니다!
- 이론과 실기가 조화된 좋은 워크숍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 예술강사와 교원이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 아이들 교육시 대상자의 성향, 교사의 성장도도 검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재밌었습니다.
- 다음에 또 만나요!
- 통합예술교육에 대한 리프레시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몸을 통한 워크숍, 즐거운 신체활동 이었습니다.
- team talk 시간이 더 길었으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들었어요. 더 많은 수업 원해요
- 여기 모인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서 창의 수업을 직접해보고 싶습니다.
-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좋은 기운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 모두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렵게 모신분들, 더 나눴으면 하는 아쉬움… 아쉬움도 있었지만 즐거웠습니다.
- 앞으로 이런 워크숍을 비롯하여 여러 워크숍이 좀 더 많아져 예술강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대했던 것보다 유용한 정보를 알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육과 문화예술의 링크, 작은 무도회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최 류 빈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신원 9기 모담지기)



지난하기만 한 교육현장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밴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육 종사자들이 문화예술을 교과과정에 녹여내 부드럽게 전달한다면, 교실마다 분명 예향이 가득할 것이다. 교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참관한 뒤의 느낌은 단순한 '교육'으로 기억에 남진 않는다는 것이다. 강의와 춤, 음악이 어우러진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흐름, 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원들이 팔을 벌려 저마다의 순간을 한 움큼씩 형용하는 이 전례 없는 워크숍을 여기 풀어낸다.

워크숍은 서울문화재단 T.A와 함께 진행되었다. 각각 무용, 시각, 연극을 전공한 세 명의 T.A가 한 호흡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큰 틀, 다양한 분야가 통섭적으로 융화되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고 분야 간 시너지도 발생했다. 수업은 우선 이론적 지식의 전달에서 출발했다.
'방법론'을 표방하는 워크숍이기에 해당 분야 강사들의 실제 경험을 듣고 재생산될 수 있는 효용이 클 것이라 공감했다. 수업을 듣는 참가자들은 주로 각 분야의 교사, 예술강사, 대학원생,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까지 다양했고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자발적 학습이기에 눈이 빛났다.
특강이 끝나자마자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강당 안에서는 음악이 흘러 나왔다. 처음엔 데면데면하던 교육생들은 이윽고 음악에 맞춰 서로 손을 맞잡았다. 마치 예술과 교육이 결속하는 것처럼 강사가 이끄는 대로, 서로는 함께 몸짓이 되고 기꺼이 추상적인 것들을 춤으로 구체화하는 상호간의 '도구'가 되었다. 서로 마음이 소원하면 마음 속 깊게 품고 있는 예술을 표출하기 힘들 것,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멀었던 마음을 곁으로 당겨오고 진심어린 사유를 표현하기 위한 워크숍의 초록(抄錄)이라 느껴졌다. 자유롭게 움직이다가도 멈추고 또 흩어졌다가 모이는 물결 같은 움직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사는 서로라는 것을 사뭇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춤 다음은 그림이었다. 지친 몸을 잠깐 멈추고 교육생들은 '움직임 지도'를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미션을 받고 움직임과 멈춤, 곡선과 직선, 원과 평면을 넘나드는 움직임들을 나타냈다. 다양하게 표현된 그림들을 보며 잠깐 다양성 같은 걸 생각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특장(特長)은 여기에 있는데, 특히 같은 내용을 교육받더라도 천편일률적인 오답이 없고 모든 해답이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그룹으로 묶인 교육생들은 같은 그림을 보고도 다른 몸짓을 자아내고, 다른 이미지를 유

사한 형태로 풀어내기도 했다. 앞으로 현장에 나가 학생들을 마주할 그들이 우선 예술의 자유분방한 선을 인정하고, 무경계성과 이채로운 색감을 몸으로 느껴보는 프로그램이었다. 각각의 작품들은 '환경의 특성'이라 명명되는 것들을 담고 있었는데, 상호관련성, 비가역성, 광역성, 퍼짐, 모임 등 다양한 무용의 기본요소를 춤에 담고 있었다. 용어적 정의를 모르고 교육을 처음 접하더라도 몸짓으로 이해가 되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네 그룹은 처음 겪어보는 무용이라는 과제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강사와 다른 참가자들끼리 협응하며 점차 근사한 모습을 갖춰갔다. 무려 세 시간 여 진행한 예술적 춤판에서 누구 하나 낙오자도 없었고 찌푸린 얼굴도 없었다. 강당 내부가 더워질 때까지 이 색다른 춤의 향연은 계속되었고 교육생들은 뛰고, 팔을 벌리고, 둥글게 손을 잡고 돌기도 하며 가까워졌다. 나이나 직업, 전공이나 성별 따위는 이 곳에서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다. 다만 끊이지 않고 흐르는 음악, 또 '예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열정의 불꽃을 점화하는 사람들의 협연이 이어질 뿐 .

말미에는 이 춤판이 신비하게까지 느껴졌다. 예술, 그 중에서도 몸짓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가장 강한 고리일까? '환경의 특성'으로 정의했던 그림활동과 몸짓언어를 결부하여 각 조마다 일종의 댄스경연을 벌였다. 첫 조는 'ing-' 이라는 제목으로 shake it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다.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다가 밖으로 뻗어 나가는 역동적인 춤사위였다. 다음은 'reflection'이라는 음악에 맞춰 전위적인 춤사위를 표현했다. 나선형으로 서로 손 잡고 뻗어나가며 하나의 흐름을 여섯 명이 살았다. 다음 팀 또한 강렬했는데 폭탄처럼 뭉쳤다가 퍼져 나가는 것을 순식간에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어 이전, 선사시대에는 이런 형식으로 소통하지 않았을까 하는 환상적 생각까지 닿았다.

유년으로 돌아가 춤을 추었던 모든 활동은 실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에서 실행할 것을 미리 체험해보기 위함이었다. 활자로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실제로 활동을 해봄으로써 피교육자와 교육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긍정적 효과까지 닿고자 함이었다. 그 깊은 교육적 함의에 놀랍기도 했고 딱딱한 워크숍보다는 저마다가 주도자가 되어 워크숍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은 이 활동들을 갈무리하며 진솔한 이야기로 정리되었다.

예술교육이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중요하다. 진정한 나를 알게 되고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방식의 접점을 깨닫게 된다. 팀티칭을 통해 체득한 더운 날 춤판의 교훈이, 저마다의 역량과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라 본다.

2018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사업

닫 . 다

CLOSE

맺 / 음 / 글

정 혜 영 _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유독 더운 여름 한 가운데 서서 학교와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교원 및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기획자와 함께 5일간의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과연계통합예술교육워크숍을 준비하였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양성과정사업을 2012년 교사실무연수과정인 “아트힐링스쿨”을 시작으로 2017년 신진문화예술교육기획자 역량강화 과정 “공유공락” 프로그램까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광주문화예술교육의 양적·질적 향상 도모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정부 차원과 학교 현장의 변화에 맞춰 대상층을 확대 통합하여 교원 및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기획자를 대상으로 ‘학생참여형’ 수업모델 및 ‘자유학기제’ 주제수업을 위한 기초역량 강화에 대한 과정을 개설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워크숍 내용도 다채로워 특강교육, 체험워크숍, 현장답사, 라운드테이블 등 다각적 접근방식을 통해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개발에 힘썼다.

이번 워크숍에서 얻고자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교육 현장도 사회나 문화가 변화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트랜드를 제공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우리지역의 미래 문화시민이 될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를 늘 있어왔던 방식대로 배우고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느낌과 감각을 열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스스로 알도록 하는 새롭게 보는 방식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이번 워크숍에 함께해주신 김인설 교수님 하주일 선생님,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가교사 선생님들과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극단북새통, 야호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문화예술교육은 바로 ‘미래’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광주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변화되어 가기를 희망한다.

펴낸일 **2018. 10.**
펴낸이 **김윤기**
기 획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혜영, 김연경, 김한경)
주 소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구동 12번지)
전 화 062-670-5764
팩 스 062-670-5769
이메일 gjarte@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gjarte.or.kr

Copyright2018 ⓒ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본 책은 2018년도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체기획사업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사업」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